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4. No. 2, 2003

癲癇의 病機에 대한 經絡的 연구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조현석
동국대학교 분당반방병원 침구과

Meridian Study on Dianxian(癲癇, Epilepsy)

Hyun-Seok Cho

Dep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I studied connection between meridians and Dianxian(癲癇, Epilepsy). Dianxian is caused by Feun(風) based on the Blood-Deficiency(血虛) which is induced by Heart-deficiency(心虛). Therefore, when Heart and blood are in deficient condition(心血虛), Heart meridian(心經) and Pericardium meridian(心包經) can be easily affected by Feng(風), which is main cause of Dianxian. Furthermore, Liver heat(肝熱) is another main cause of Dianxian. It shows along Liver meridian(肝經) and affects Pericardium Meridian(心包經). Heart, Pericardium and Liver are main organs of human psychoconscious activities, and also are main pathological organs of Dianxian. Dianxian progresses in several ways and simtoms of Dianxian are variant according to the deficiency-exess state(虛實) of Stomach and Spleen meridians(脾胃經). So, I concluded that controlling Heart, Pericardium, Liver, Stomach and Spleen meridians can make therapeutical effects on Dianxian. So I report it for the better treatment, and it should need further study.

Key words : Dianxian(癲癇), Epilepsy, Meridian

※위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교신저자 : 조현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침구과
Tel : 02-710-3746 E-mail : mydoctor@netian.com

I. 서론

癲癇은 소아와 성인에 있어서 폭넓게 발생하나 주로 소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한의학에 있어서 癲에 대한 문헌적 기록은 馬王堆 帛書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黃帝內經에서 그 病理와 治法의 大綱이 제기되어있다. 癲癇의 병리에 관해서 《素問·大奇論》¹⁾에서 “心脈滿大 肝脈小急”라고 언급한 것처럼 心과 肝이 癲癇의 병리에 있어서 중요장부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 전간의 병리에 관하여 후대의가의 저술이 많았으나 經絡의 관점에서의 癲癇의 病機 연구가 없었던 바, 저자는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經絡과 관련된 癲癇의 문헌고찰을 통해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癲癇의 鍼灸治療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방법

1) 문헌 자료

黃帝內經의 7종의 문헌을 조사자료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문헌 자료는 內經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문헌 중 癲癇의 病因, 病機 및 鍼灸 治療에 있어서 經絡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기존의 癲癇의 병리학설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III. 문헌의 내용

《素問·大奇論》¹⁾

“二陰急爲癲厥……心脈滿大, 癲癇筋攣; 肝脈小急, 癲癇筋攣.”

《靈樞·邪氣臟腑病形篇》²⁾

肺脈急甚爲癲疾……腎脈急甚爲骨癲疾.

《靈樞·經脈篇》²⁾

膀胱足太陽之脈, ……是主筋所生病者, 痔瘡狂癲疾.

《靈樞·癲狂篇》²⁾

癲疾始生, 先不樂, 頭重痛, 視舉目赤, 甚作極, 已而煩

心, 候之於顏. 取手太陽, 陽明, 太陰, 血變而止. 癲疾始作, 而引口啼呼喘悸者, 候之手陽明, 太陽. 左强者, 攻其右, 右强者, 攻其左, 血變而止. 癲疾始作, 先反強, 因而脊痛, 候之足太陽, 陽明, 太陰, 手太陰, 血變而止. 治癲疾者, 常與之居, 察其所當取之處. 病至, 視之有過者瀉之, 置其血於瓠壺之中, 至其發時, 血獨動矣, 不動, 灸窮骨二十壯. 窮骨者, 髀骨也.

筋癲疾者, 身倦舉急, 大刺項大經之大杼脈, 嘔多沃沫, 氣下泄, 不治.

脈癲疾者, 暴仆, 四肢之脈皆脹而縱, 脈滿, 盡刺之出血, 不滿, 灸之挾項太陽, 灸帶脈於腰相去三寸, 諸分肉本輸. 嘔多沃沫, 氣下泄, 不治. 癲疾者, 疾發如狂者, 死不治.

骨癲疾者, 癲齒諸腭分肉皆滿而骨居, 汗出煩, 嘔多沃沫, 氣下泄, 不治.

《靈樞·寒熱病》²⁾

暴變癲眩 足不任身 取天柱.

《針灸甲乙經》皇甫謐³⁾

〈陽厥大驚發狂癲〉

癲疾上星主之 先取諛諛, 後取, 天容, 風池. 癲疾, 互引口喎 喘悸者 大迎主之 及取陽明, 太陰, 候手足變血而止.

《諸病源候論》巢元方⁴⁾

風癲疾

風癲者 由血氣虛邪入於陰經故也 人有血氣少 則心虛而精神雜散 魂魄妄行 因爲風邪所份 故 邪入於陰則爲癲疾

《儒門事親》張從政⁵⁾

大凡風癲病發項強直視 不省人事 此乃肝經有熱也.

《普濟方》朱橚⁶⁾

癲癇附論

癲病者 施暈顛倒 吐涎沫 搗搦騰踴 作馬嘶鳴 多因挾熱著驚 心動騰顛 查涎入心之所致也 各曰馬癲以馬屬在午 子少陰君火主之 故其病生於心經

病者暈眩 四肢煩疾 昏悶顛倒 製縱吐沫 作羊叫聲 多因少小臍瘡末癒 數洗浴 濕襲脾經之所致也 名曰羊癲以羊屬未神位 足太陰濕土主之 故其病生於脾經 病者昏暈顛倒 兩牛頻伸 作鷄叫聲 須臾即醒 醒復發

多因少小燥氣份胃 煩毒內作 查涎入胃之所致也 名曰鷄癇 以鷄屬酉 足陽明燥金主之 故其病生於胃經 病者眩暈顛倒 眼目相引 牽繼急強 作猪叫鳴 吐涎沫 食頃方已 多因少小吐利 挾風之所致也 名曰猪癇 以猪屬亥 手厥陰心包絡 風木主之 故其病生於右腎經 病者眩暈顛倒 目反口噤 瘦癢吐沫 作右吼聲 多因少小混熱份肺 涎留肺系 遇燥熱則發動 名曰牛癇 以牛屬丑 手太陰濕土主之 故其病生於肺經

癲附論

癲疾始生 先不藥 頭重 直視舉目 赤甚作極 已而煩心 候之於顏 取手太陽 陽明 太陰 血變而已

癲疾始發而反強 因而脊痛 候之足太陽 陽明 太陰 手太陽 血變而已 癲疾始作 而引口啼呼 甲乙作喘悸者 候之手陽明 太陽 右強者攻其左 左強者攻其右 血變而止 癲疾者常與之居 察其所當取之處 病至視之有 遇者即浮之 置其血於瓠壺

骨癲疾者 頷齒諸輪 分肉皆滿 而骨倨強直 汗出 煩悶 吐涎沫 氣下泄下利

脈癲疾者 暴仆 四肢之脈 皆脹而縱 脈滿 盡刺之出血 不滿 依項灸太陽 又灸帶脈 於腰相去三寸諸分肉本 輸 口多涎沫 氣下泄不治

《醫學正傳》吳搏⁷⁾

癇證

內經曰：巨陽之厥，則腫首頭重，足不能行，發為眩仆。是蓋陽氣逆亂，故今人卒然暴仆而不知人，氣復則甦，此則癇之類也。

《醫學準繩》張三錫⁸⁾

總論

大抵癲癇之發，由腎中陰火上逆，而肝從之……則偏身之脂液促迫而氣上逆，吐出於口也。然腎間動氣乃生氣之原，腎傷則志不足，故神躁擾，火逆上，攻動其痰而厥也。

《鍼灸節要》高武⁹⁾

癲疾者始生 先不藥 頭重頭痛 視舉目赤 甚作極已而煩心 候之於顏 取太陽陽明太陰 血變而止 癲疾始作 而引口啼呼喘悸者 候之手陽明太陽 左強者攻右 右強者攻左 血變而止 癲疾始作 先反僵因而脊痛 候止足太陽陽明手太陽 血變而止 齒癲疾常與之居 察其所當取之處 病至視之 有過者瀉之 置氣血於瓠壺

之中 至其發時 血濁動矣 不動 灸竅骨二十壯 竅骨者 骹骨也 骨癲疾者 頷齒諸俞分肉皆滿而骨居 汗出煩 惋 口多沃沫 氣下泄不治 脈癲疾者 暴仆 四肢之脈 皆脹而縱 脈滿 盡刺之出血 不滿灸之 煩項 太陽灸帶脈 於腰上去三寸 諸分肉本輸 口多沃沫 氣下泄不治 癲疾者 疾發如狂者 死不治。

IV. 본론 및 고찰

癲癇의 經絡의 고찰에 앞서 癲癇의 病因과 症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癲癇의 原因은 《素問·奇病論》¹⁾에서 “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이라하여 先天的 요인을 말하였고, 巢⁴⁾는 “邪入於陰則爲癲疾 又人在胎 其母卒大驚 精氣并居令子 發癲”이라하여 癲疾의 유전적 요인을 언급하였고, “癇者小兒病也 ……十歲以下爲癇 ……其發之源 此因三種風癇驚癇食癇也”라하여 癲癇의 原因인 風驚食의 三種으로 分類하였으니 癇證이 주로 小兒에서 多發한다고 하였다. 張¹⁰⁾은 “癲病多由痰氣 凡氣有所逆 痰有所滯 皆能壅閉經絡 格塞心竅”라하여 癲疾의 原因이 痰에 있음을 말하였고, 虞⁷⁾는 “癲爲心血不足 多爲求望高遠 不得志者有之”이라하여 心血不足으로 神氣乏力하여 발생된다 하였으며, 高⁹⁾는 癲疾 외에 骨癲疾·脈癲疾이 있음을 말하였으며, 楊¹¹⁾은 思慮가 太過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肝氣가 鬱結되고 脾의 功能이 失調되어 그 結果 氣鬱生痰하고 痰이 神明을 阻塞하여 癲證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또한, 心脾 兩臟이 虛하여 氣血不足을 誘發하고 心神을 營養하지 못하여 神明을 보존치 못한 結果 癲證이 발생된다고 하였고, 病因에 근거하여 痰氣鬱結과 心脾兩虛 兩種으로 나누고 있어, 일반적인 癲癇이 肝風痰壅痰火閉塞經絡心竅, 肝腎陰虛, 脾腎氣虛, 七情氣鬱 등에 발생됨을 알 수 있다.

癲癇의 症狀은 《靈樞·癲狂病篇》²⁾에서 “癲疾始生 先不藥 頭重痛 視舉目赤 甚作極已而煩心 癲疾始作 引口啼呼喘悸 先反僵因而脊痛”라하여 癲疾에 癲과 癇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巢⁴⁾는 “癲病其發仆地 吐涎沫 無所覺是也 癇者其發之狀 或口眼相引 而兩目清上搖 或手足撻縱 背脊強直 或頸項反折”이라하여 癲證과 癇證을 구별하고 있다. 楊¹¹⁾은 痰氣鬱結

과 心脾兩虛 兩種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痰氣鬱結의 症狀은 “表情淡漠 神志痴呆 語無論次 時哭時笑 喜怒無常 不思飲食 舌苔白膩 脈狀弦細或弦滑” 등 精神이 抑鬱된 양상을 보이고, 心脾兩虛의 경우는 “神思恍惚 魂蒙顛倒 失眠多夢 沈默寡言 心悸易驚 善悲欲哭 肢體困乏 倦怠無力” 등의 氣血不足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였다. 高⁹⁾는 “癲疾者始生 先不藥 頭重頭痛 視舉目赤 甚作極已而煩心” “癲疾始作而引口啼呼喘悸者” “癲疾始作 先反僵因而脊痛”이라 하여 癲疾의 다양한 症狀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癲癇의 原因, 증상을 고찰하였는 바, 먼저 癲癇의 病因과 病機를 內經에서 經絡의 觀點에서 살펴보면, 《素問·大奇論》¹⁾에서 癲癇의 原因을 “二陰急爲癲厥” “心脈滿大, 癰瘵筋攣; 肝脈小急, 癰瘵筋攣.”이라고 하여 心이 癲癇의 原因 장부로서, 心經과 肝經의 癲癇의 病機의 발현경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靈樞·邪氣臟腑病形篇》²⁾에서는 “肺脈急甚爲癲疾……腎脈急甚爲骨癲疾”이라고 하여, 肺經脈의 急은 癲疾이며, 腎經脈의 急은 骨癲疾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靈樞·癲狂篇》에서는 “癲疾始生……取手太陽, 陽明, 太陰, 血變而止. 癲疾始作而引口啼呼喘悸者……候之手陽明, 太陽. 左强者, 攻其右, 右强者, 攻其左, 血變而止. 癲疾始作, 先反强, 因而脊痛,……候之足太陽, 陽明, 太陰, 手太陰, 血變而止.” “筋癲疾者, 身倦舉急, 大刺項大經之大杼脈, 嘔多沃沫, 氣下泄, 不治.”라고 하였으며, “脈癲疾者, 暴仆, 四肢之脈皆脹而縱, 脈滿, 盡刺之出血, 不滿, 灸之挾項太陽, 灸帶脈於腰相去三寸, 諸分肉本輸.”라고 하였다.

이는 癲狂의 처음 발생할 때는 病의 邪氣가 手太陽經脈, 手陽明經脈, 手太陰經脈에 있으며, 그 癲狂의 질환의 초기에는 질환의 증상에 따라 手陽明大腸經과 手太陽小腸經 혹은 足太陽經脈, 足陽明經脈, 足太陰經脈의 예후를 살피고 治療하여 治療를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 증상에 따라 예후를 살피고, 治療하는 經絡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半身의 症狀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출현할 때는 반대측의 刺鍼으로 治療의 效果를 극대화하고 患者의 안정을 維道했다.

또한, 是動所生病의 觀點에서는 “膀胱足太陽之脈, 是主筋所生病者, 痔瘡癲癇疾.”이라고하여 足太

陽膀胱經의 所生病으로 癲癇을 인식하였다. 內經에서 구체적인 經穴의 刺鍼을 통한 癲癇의 治療는 그 횟수가 많지는 않으나, 靈樞·癲狂篇에서 “筋癲疾者, 身倦舉急, 大刺項大經之大杼脈”이라고 언급하였고, 《靈樞·寒熱病》²⁾에서는 “暴變癲眩 足不任身 取天柱.”이라고 하였다.

종합해보건데, 內經에서의 癲癇에 대한 인식은 臟腑論의인 인식과 六經辨證적인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六經傳病의 觀點으로 살펴보면, 外邪 즉 風邪의 침입으로 인한 病인으로서, 邪氣의 침투경로인 六經중 가장 表部의 太陽經을 시작점으로 한 病機의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太陽→陽明→太陰의 순서로 病이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기가 가장 深部인 腎經脈 또는 骨에 이르러서는 骨癲疾이 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癲癇의 病機의 진행과정중 脾胃가 밀접하게 관여하여 太陽經을 지나 胃經(陽明經)과 脾經(太陰經)을 따라 邪氣가 深部로 維道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後天之本으로서의 脾經과 胃經의 虛實이 病의 盛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癲癇의 대발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脊背强急”의 증상은 足太陽膀胱經이 流注하는 부위로서, 이 부위에서의 癲癇의 증상이 두드러지며, 大杼와 天柱의 근위취혈로써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 臟腑와 癲癇과의 관계를 內經에서 살펴보면, 五臟중 心과 肝의 虛實이 癲癇의 발병과 病機에 중요한 장부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手少陰心經(心脈)과 足厥陰肝經(肝脈)의 虛實이 “癰瘵筋攣”을 일으키는 病理임을 표현하고 있다.

역대의 의가의 癲癇의 病機와 經絡과의 관계를 經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少陰經의 生理를 살펴보면, 少陰經은 手少陰心經과 足少陰腎經을 포괄하고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과 表裏를 이룬다. 手少陰經은 心에 속하고 心은 主火하고 主血脈하며 精神意識活動과 관계가 있다. 足少陰經은 腎에 속하고 腎은 主火하고 主藏精하고 眞陰과 眞陽이 모두 그 屬에 있으므로 腎을 先天之本이라 한다.

正常 생리상태에서는 心火가 經脈을 통하여 腎에서 下交하여 神藏을 溫暖하게하고 膀胱之氣로 化하여 水道를 通調하고 동시에 腎水 또한 心으로 올라

가 心火가 偏亢하지 못하게하여 水升火降하는 상호 협조, 상호제약의 기능으로 인체의 정상생리활동을 유지하게 한다.¹²⁾

《素問·大奇論》에 이르길, “二陰急爲癇厥”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二陰이란 少陰으로서, 少陰君火의 病理가 癇厥의 病理가 됨을 알 수 있다. 唐·王燾의 《外臺秘要》¹³⁾와 宋의 《太平聖惠方》¹⁴⁾에서 동일하게 “病源風癲者 有血氣虛 風邪入於陰經故也 人有血氣少 則心虛而精神離散 魂魄妄行 因爲風邪所致 故邪入於陰則爲癲疾”이라고하여 心이 虛하여 발생한 血虛의 孔隙을 風邪가 침입하여 風癲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風의 外邪의에도 心의 內因이 風癲에 관련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太平聖惠方》¹⁴⁾에서 “夫風癲病者 皆由臟腑壅熱 風邪干於心也 心主於血 故血壅而不行 則榮衛氣澁 血脈即亂 神氣不定 故發癲也.”이라고하여 비록 風癲이라 할지라도 心이 血을 運行하는데에 壅滯不行이 발생하여 血脈亂이 발생하여 神氣不定하여야 癲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心經의 血脈의 亂, 不亂이 “癲”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宋·吳錫璜의 《聖濟總錄》¹⁵⁾에서 “風癲病者由心氣不足”는 직접적으로 心經의 經氣不足이 風癲의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宋代 嚴用和가 나는 五癲중 馬癲이 心에 歸屬되며, 明·《普濟方》⁶⁾에서 “癲病者 旋暈顛倒 吐涎沫 搐搦騰踊 作馬嘶鳴 多因挾熱著驚 心動騰攝 查涎入心之所致也 名曰馬癲而馬屬在午 于少陰君火主之 故其病生於心經”이라고하여 馬癲이 心經에서 발생한 少陰君火의 逆亂한 所致에 의해 癲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足少陰腎經과 관련해서는, 《醫學準繩》⁸⁾에서 “大抵癲癇之發 由腎中陰火土逆 而肝從之 故作搐搦……” “然腎間動氣 乃生氣之原 腎份則志不足 故神躁擾火逆上 攻動其痰而厥也” 腎陰火가 吐逆하거나 腎間動氣의 臍下腎間動氣不足으로 痰을 上擾하여 발생한 소치가 癲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厥陰經의 生理에 관해 살펴보면, 厥陰經은 手厥陰心包經과 足厥陰肝經을 포괄하고 手少陽三焦經과 足少陽膽經과 서로 表裏관계이다.

心包는 心의 주위를 두르고 心包의 火는 三焦를 통해 下焦로 가서 腎水를 溫暖하게하여 臟腑의 생리

활동을 촉진한다. 病邪가 厥陰에 들면 肝의 條達機能이 저하되고 心包 또한 影響을 입어 病程이 복잡하게 변화한다.¹²⁾ 巢元方⁴⁾은 《諸病原候論·風癲候》에서 “人在胎 其母卒大驚 精氣并居 今子發癲其發則仆也 吐涎沫 無所覺是也 原其癲病 皆由風邪故也”이라고하여 癲은 風邪로 인한 病機임을 밝혔고, 《外臺秘要》¹³⁾, 《太平聖惠方》¹⁴⁾, 《聖濟總錄》¹⁵⁾, 《普濟方》¹⁶⁾에서 心血이 부족한 가운데 風邪가 침입하여 발생한 소치가 風癲 및 風癇임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또한, 心包는 心의 주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厥陰風邪와 心血不足 및 厥陰心包의 病理는 癲癇의 病機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吳謙은 《醫宗金鑑》¹⁶⁾에서 “陰癲 多因慢驚 之後痰入心包而得... 陽癲 多因急驚祛風下痰不淨久而致成此證”이라고하여 內因으로는 慢驚이 心包를 阻塞한 것이 陰癲이고, 急驚으로 발생한 風으로 생긴 것이 陽癲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厥陰風邪가 心血不足의 상태에서 體內로 침범하되 外邪(厥陰風邪)와 內因(心血不足)의 중간 연결경락으로서 厥陰心包經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風으로 발생한 痰이 心包를 阻塞하는 病理는 癲癇에서 중요한 병리기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厥陰風木, 厥陰心包에 의한 癲癇의 病機는 明代 朱橚의 《普濟方》⁶⁾에도 잘 나타나 있다. “病者眩暈顛倒 眼目相引 牽繼急強 作豬叫鳴 吐涎沫食頃方已 多因少小吐利 挾風之所致也 名曰豬癲 以豬屬亥 手厥陰心包絡 風木主之 故其病生於右腎經”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厥陰風木-厥陰心包-少陰腎經의 연계에 의하여 癲癇의 증상들이 발현하고 있으며, 그 이러한 특징은 右腎經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다.

明대의 張三錫의 “大抵癲癇之發, 由腎中陰火上逆, 而肝從之 ……則偏身之脂液促迫而氣上逆, 吐出於口也.”라는 《醫學準繩》⁸⁾의 언급도 역시 厥陰風木-厥陰心包-少陰心-少陰腎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驚癲 小兒素肝熱盛 偶被驚邪所觸 因而神氣潰爛 遂成癲證”라고 하였으며, 金·張從政은 《儒門事親》⁵⁾에서 “大凡風癲病發項強直視不省人事 此乃肝經有熱也.”라고 肝熱의 肝經에서의 발현이 癲癇의 발병기전임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厥陰經의 表裏經인 心包經과 肝經의 운영은 癲癇의

治療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太陽經의 생리에 관해 살펴보면, 太陽經은 手太陽小腸經과 足太陽膀胱經을 포괄하고, 手少陰心經, 足少陰腎經과 表裏관계를 이룬다. 太陽은 營衛를統攝하고 一身의 表를 주관하여 病邪의 侵入을 막아내므로 六經의 울타리가 된다. 外邪가 인체를 침입하면 太陽이 제일 먼저 外氣에 대항하여 營衛가 不和하게 되고 衛氣가 表에서 外氣와 交爭한다.¹²⁾ 또한, 太陽經중 足太陽經脈은 督脈의 兩側傍을 流注하면서 主陽主表하는 기능을 갖고, 癲癇의 대표적인 증상인 “脊背強急”의 증상이 발현하는 부위이다.

따라서, 《靈樞·癲狂篇》²⁾에 “癲疾始生……取手太陽, 陽明, 太陰, 血變而止.” 이라고 하여 癲疾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太陽經부터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癲疾始作, 先反強, 因而脊痛, ……候之足太陽, 陽明, 太陰, 手太陰, 血變而止.” 이라고하여 癲疾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足太陽經이 流走하는 背部에 증상이 多發할 때에는 예후를 살피는 데에도 먼저 足太陽經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다.

明代·高武는 《鍼灸絕要》⁹⁾에서 “癲疾者始生……取太陽陽明太陰 血變而止. 癲疾始作 先反僵因而脊痛 候止足太陽陽明手太陽 血變而止. ……脈癲疾者……灸之 頰項 太陽.” 이라고 하여 전질의 증상의 발현과 진행 및 치료에 足太陽經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靈樞·經脈篇》²⁾에서는 “膀胱足太陽之脈是主筋所生病者 痔瘡狂癲疾” 이라하여 足太陽經의 所生病임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癲疾의 치료에 있어서도, 《靈樞·癲狂篇》²⁾에 “筋癲疾者, 身倦舉急, 大刺項大經之大杼脈” “脈癲疾者, 暴仆, 四肢之脈皆脹而縱, 脈滿, 盡刺之出血, 不滿, 灸之挾項太陽” 이라고 하여 癲疾의 증상에 따라 筋癲疾과 脈癲疾로 구분하되 太陽經의 大杼取穴로 조절하여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靈樞·寒熱病》²⁾에 “暴變癲眩 足不任身 取天柱” 라고 하여 足太陽經의 天柱의 取穴로 조절하고자 하였다. 張介賓은 《類經·鍼刺類》¹⁷⁾에서 “筋癲疾者 病在筋也. 其身倦怠拘攣, 其脈急大, 當刺項下足太陽經之大杼穴. 若上而嘔沫, 下而洩氣者.” 라고하여 足太陽膀胱經의 大杼穴의 刺鍼으로 癲疾의 治療에 있어서 太陽經의 조절을 강조했다.

《醫學正傳》⁴⁾에서 “癇證 巨陽之厥則腫 首頭重 足不能行 發爲眩仆 是蓋陽氣逆亂 故令人卒然暴仆

而不知人 氣復則醒 此則癇之類也” 라고하여 足太陽膀胱經이 流注하는 背部의 部位를 따라 筋急이 발생하는 癲癇의 症候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足太陽膀胱經은 歷代의 醫家들의 癲癇의 鍼灸治療에서도 가장 많이 다용되었다.¹⁸⁾ 또한, 太陽經의 經絡중 足太陽膀胱經의 經穴로 癲癇의 治療에 다용된 것으로는 申脈이 있고, 手太陽經脈의 經穴로는 後谿가 있다. 後谿와 申脈은 奇經八脈의 交會穴인 八脈交會穴의 經穴로서 後谿는 督脈의 交會穴이며, 督脈은 諸陽之會로서 “脊強而折厥”의 病症이 발현하고, 申脈은 陽蹻脈의 交會穴로서, 陽蹻脈은 足太陽之別이며 “陰緩而陽急 陽急而狂奔”의 病症이 발현한다.

足太陽之別인 陽蹻脈의 病症인 “陰緩而陽急 陽急而狂奔”과 督脈의 病症인 “脊強而厥”은 癲癇의 症狀과 일치하는 점이 많고, 督脈과 足太陽經脈은 背脊部를 並行하여 流走하면서 癲癇의 증상이 多發한다.¹⁹⁾ 後谿와 申脈을 刺鍼하여 “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의 病證을 治療할 수 있는데, 주치하는 부위와 癲癇의 주요증상(癲病其發仆地 …… 癇者其發之狀 或口眼相引 而兩目清上搖 或手足撻縱 背脊強直 或頸項反折)의 발현부위는 일치하고 있다.

陽明經의 생리에 관해 살펴보면, 陽明經은 手陽明大腸經과 足陽明胃經을 포괄하고 手太陰肺經, 足太陰脾經과 表裏를 이룬다. 胃는 주로 水穀을 受納하고 腐熟하고 脾는 주로 精微물질을 運化하여 胃는 主降하고 脾는 主升하는 상호계약과 促進의 관계로 脾胃를 일컬어 後天之本이라 한다. 大腸은 肺의 肅降作用과 相制하고, 糟粕을 傳導하는 일을 주관한다.¹²⁾

《素問·厥論》¹⁾에서 “陽明之厥 則癲疾欲走 呼腹滿不得臥 面赤而熱 妄見而妄言”에서 언급된 것처럼 陽明經의 “厥”병리가 癲疾의 症候로 발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靈樞·癲狂篇》²⁾과 《鍼灸絕要》³⁾에서 癲癇의 증상이 나타나고, 증후를 살피며, 치료에 있어서, 足太陽經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足陽明經 혹은 手陽明經을 살피고, 取穴하라고 하였다. 內經의 癲癇의 病機에 대한 經絡의 언급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癲癇의 病機는 太陽에서 시작하여 陽明 및 太陰을 거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宋의 嚴用和는 《濟生方》²⁰⁾

에서 五癇의 分類로써 心, 脾, 胃, 腎, 肺으로 分類하였는데 “鷄癇 作鷄叫聲 應乎胃”라하여 鷄癇을 胃에 귀속시켰다.

五臟의 分類상 “應乎肝”이 있어야 하는 부위에 “應乎胃”가 있는 것은 胃와 癇癇의 病機가 밀접한 관계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普濟方》¹⁶⁾에서는 “病者昏暈顛倒 兩手煩伸 作鷄叫聲 須臾即醒 醒復發 多因少小燥氣份胃 煩毒內作 查涎入胃之所致也 名曰鷄鳴 以鷄屬酉 足陽明燥金主之 故其病生於胃經”라고하여 鷄癇이 足陽經에 속함을 설명하고 있다.

太陰經의 生理에 관해 살펴보면, 太陰經은 手太陰肺와 足太陰脾를 포괄하고 手陽明大腸, 足陽明胃와 表裏를 이룬다. 正상의 생리상태에서는 水穀의 腐熟, 消化와 排泄을 胃腸이 저장하고 水穀精微는 脾의 運化와 肺氣의 輸布기능에 의해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므로 脾氣는 升하고 胃氣는 降하는 것이 順理이다. 즉, 脾主運化하여 清陽을 升하게 하고, 胃는 津液을 運행하는 것이다. 大腸은 肺氣의 升降작용과 津液수포의 도움으로 傳導排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로써 肺와 大腸은 서로 相合하여 清陽을 상승하고 濁陰은 下降하게 하면 精微와 水液을 전신에 運行하도록하여 인체의 정상생리활동을 유지하고 건강하도록 한다. 宋代의 嚴用和의 《濟生方》²⁰⁾의 五癇분류에서 羊癇이 應乎脾하며, 《普濟方》⁶⁾에서 “病者暈眩 四肢煩疾 昏悶顛倒 製縱吐沫 作羊叫聲 多因.....濕襲脾經之所致也 名曰 羊癇以羊屬未神位 足太陰濕土主之 故其病生於脾經”라고하여 羊癇이 脾經에 屬함을 설명하였다. 앞서 《靈樞·癲狂篇》²⁾과 《鍼灸絕要》⁹⁾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癲癇의 病症이 發현하고, 證候를 살피는데에 중요한 經絡으로 太陽經, 陽明經, 太陰經이 있다. 足太陽經은 癲癇의 症狀이 주로 發현하는 부위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陽明經과 太陰經은 脾胃表裏經으로서 癲癇의 증상이 發現하고 豫候를 살피는데에 있어서 脾胃의 虛實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脾胃가 본래 허약하면 寒濕이 內阻하거나 寒濕邪가 中焦에 直中한다. 寒濕痰邪가 內阻한 所致로 나타나는 癲疾로는 《景岳全書》¹⁰⁾에서 “...癲病多由痰氣 凡生由所逆 痰有所滯皆能壅閉經絡 格塞心竅 故發則施暈僵仆 口眼相引故治此當察痰察之考而先治之”라고하여 脾胃의 寒濕邪가 內阻한 소치인 痰으로 心竅를 阻塞한 결과로서의 癲癇

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먼저 痰을 治療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醫宗金鑑》¹⁶⁾에서는 癇을 陰癇, 陽癇, 驚癇, 痰癇, 食癇, 風癇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食癇 및 痰癇에 대하여 “痰癇 平素自多痰,食癇 其病在脾 因小兒乳食過度停結中脘 乘一時痰熱壅盛 遂致成癇食癇”이라고하여 足太陰 및 脾胃의 運化不調의 所致로서 發생한 癇證을 설명하였다. 또한, 朱橚의 《普濟方》⁶⁾에서 “病者眩暈顛倒 目反口噤 瘦癯吐沫 作右吼聲 多因少小混熱份肺 涎留肺系 遇燥熱則發動 名曰牛癇 以牛屬丑 手太陰濕土主之 故其病生於肺經”라는 언급에서 볼수 있듯이 癲癇의 증상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濕土의 조절에 太陰肺經이 이용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癲癇의 病機는 心血虛한 孔隙을 厥陰風木의 外邪가 侵入하여, 厥陰心包를 연계하여 侵入하되, 그 병사의 발현은 陽明經과 太陰經의 虛實여부에 따라 病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太陰經과 陽明經의 濕土와 燥金의 조절이 부적절하여 發생한 痰이 心竅를 阻塞하여 癲癇이 發생할 수 있으며, 癲疾이 심화되어, 腎經의 癲癇으로 골전질이 發생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癲癇의 病機에 관련된 少陽經의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IV. 요약 및 결론

저자는 黃帝內經 및 歷代의 癲癇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서 經絡과의 相關性을 연구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癲癇은 手少陰心經이 經脈의 血을 營養하지 못하는 가운데, 厥陰風邪가 經絡을 侵襲하여 厥陰心包의 연계를 따라 足厥陰肝經의 肝熱上炎한 소치이다. 厥陰經은 手厥陰經과 足厥陰經을 포괄하므로, 肝風熱의 上炎으로 인한 癲癇의 發病影響을 心包經과 肝經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手厥陰心包經은 足厥陰肝經과 表裏를 이루고 있으며, 心의 주위를 감싸고 있어서 肝火의 영향을 바로 주로 받을 수 있는 바, 癲癇의 發病과 주요 病機는 手厥陰心包經, 足厥陰肝經 및 手厥陰心包經이 중요하게 作用한다. 癲

癲은 脊背部의 足太陽膀胱經의 流注부위에 그 증상이 다발하며, 足太陰脾經과 足陽明胃經의 虛實여부에 따라 濕土와 燥金의 平형실조에 따라 생성된 痰이 心竅를 阻塞하여 癲癇이 다양하게 轉化·發展되며, 足少陰腎經에 이르러는 骨癲疾이 된다. 따라서, 癲癇의 증상을 관찰하데에는 足太陽經을 살피고, 치료에도 가장 多用할 수 있으며, 癲癇의 病症이 發展하고 變化하는데에는 陽明經과 太陰經의 虛實여부에 따라 그 病症이 다양하게 表출되고 있다. 따라서, 精神의식활동의 가장 중요한 臟腑로서 心, 心包 및 肝의 經絡의 氣機失調가 癲癇의 발병의 중요한 原因이라고 할 수 있으며, 癲癇의 증상의 발현은 足太陽經脈에서 다발하며, 脾胃經의 상태에 따라 症狀이 변화할 수 있다. 이는, 癲癇의 治療에 중요한 要점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향후 癲癇 발병원인과, 病症 및 脾胃經의 상태에 따른 鍼灸 治療방법으로서 足厥陰肝經, 厥陰心包經, 手少陰心經, 足陽明胃經, 足太陰脾經 및 足少陰腎經의 經絡調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로써 향후 癲癇의 經脈診斷을 통한 精確한 鍼灸治療의 접근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經穴자극이 향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10.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78:609-10.
11. 楊醫竝編. 中醫學問答.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5:120-1
12. 강희상, 한성수. 傷寒論과 鍼灸. 서울:대성문화사. 1997:7,86-7,120,140,151, 181.
13. 王 焘. 外臺秘要, 四庫全書. 서울:大星文化社. 1995:492
14. 翰林醫官院. 太平聖惠方. 北京:存仁中醫學院.604-13.
15. 吳瑣錫. 聖濟總錄. 上海:上海棋盤街文書堂.
16. 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6:1318.
17. 張介賓. 類經. 서울:대성문화사. 1998:484.
18. 박영철, 채우석. 癲癇의 鍼灸치료에 대한 고찰. 대전대논문집. 1992:145-53
19.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77-210.
20. 嚴用和. 濟生方. 서울:麗江出版社. 1987:743,

참 고 문 헌

1. 王琦 외.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成輔社. 1983:215, 227.
2.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 靈樞. 서울:成輔社. 1995:63,67,138,228,233-5.
3. 山東中醫學院. 針灸甲乙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0:1315-20.
4. 巢元方. 諸病源候論. 서울:大星文化社. 1992:21-2
5. 張從政. 儒門事親.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2001:395
6. 朱橚. 普濟方. 서울:大星文化社 四庫全書 十八. 310. 317.
7. 虞博. 醫學正傳. 서울:成輔社. 1986:267.
8. 張三錫. 醫學準繩. 서울. 韓國韓醫學研究院. 醫部集成. 2001:13696.
9. 高武. 鍼灸節要. 華聯出版社. 1983:14-5.